

도로문화 속에서 경관의 자리잡기



손 원 표 | 동부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장

1.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길'

'국토의 풍경에는 그 나라 국민의 바탕과 지성이 담겨있다'는 말이 있다. 아름다운 국토풍경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고 미래의 꿈을 펼치게 되기 때문이다.

혹독한 자연여건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유럽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강조하여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자연 속 무한한 공간을 마음 속 공간으로 담아내며, 자연 속에서 훈련된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활 속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목적지에 빨리 닿게 하는 '달리기만 하는 도로'라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자신이 달려온 도로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아름다운 경관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확장된 국토 38호선을 빠르게 달려 정선 카지노에 가서 밤새워 즐기다 맛있는 먹거리를 실컷 먹고 왔다'는 「결과중심」의 이야기가 회자되는 분위기에서 살아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도로를 달리며 '길'이 지나가는 주변에 숨쉬고 있는 역사·문화·전통의 흔적들과 자연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지, 약간의 설레임을 가져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다.

굽이굽이 도는 계곡과 하천을 따라 '길'을 달리며, 자연의 경외로움에 감탄하였던 1970년대, 1980년대의 정취는 어슴푸레한 추억 속에서만 찾을 수 있게 된 현실이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다르게 마음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다.

2. 자연과 삶,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는 '길'

이상적인 도로는 도로의 이동성과 공간기능이 적절히 확보되면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이용자의 편의가 보장되며 역사·문화가 연계되어 노선별·지역별 테마가 구현된 도로이다. 따라서 도로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지역 특유의 역사·문화·전통·자연자원 요소를 발굴하고 공간별 테마를 설정하여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수변과 산악지역, 전원지역

에 조성하여 우수한 경관이미지와 지역이미지를 반영한 아름답고 새로운 도로가 「테마도로」이다.

테마도로의 대상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달리는 길, road」과 도보로 답사하는 「걸는 길, trail」로 구분된다. '걸는 길'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기본으로 하여 '길'의 가치와 의미, 주제(theme)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걸고 싶은 길'을 조성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자연과 경관을 통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지역문화를 체험하며, '길' 위에서 소통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달리는 길」 또한, 장소성·역사성·경관성 등을 반영하여 조성하여야 '길' 위에서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 조상들의 흔적과 기층정서와 뿌리를 같이 하는 도로는 우리의 삶과 정서, 역사, 문화가 물리적·정신적으로 어우러져 녹아 있으므로 도로기술자들은 자연 속에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조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테마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상도로의 각 구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상지

에 대한 테마의 유형별 경관도출을 통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접근하며, 산악지역 대상도로의 산지형 테마도로의 경우에는 산지경관형, 구릉지경관형, 계곡경관형, 산림휴양경관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경관이 주제별로 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지형 테마도로에 적용할 수 있는 '계곡경관'의 경우에는 전망형과 근경형으로 구분되며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테마요소와 도로개설로 단절된 생태계 연결을 위한 구성요소를 도입하여 통과하는 도로의 테마를 도로이용자가 느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도 46호선 「진부령 가는 길」의 경우에는 한계령 도로와 연결되는 한계삼거리에서 용대리를 거쳐 진부령으로 가는 길이므로 '산천초목(山川草木)'의 자연테마를 도입하여 강원도 지역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며 특히, 진부령과 연결되는 백두대간과 설악산국립공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산악형 경관은 '산천초목' 테마의 '산'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이 구간은 강원도 지역 특유의 산천초목의 사계를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도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테마를 구상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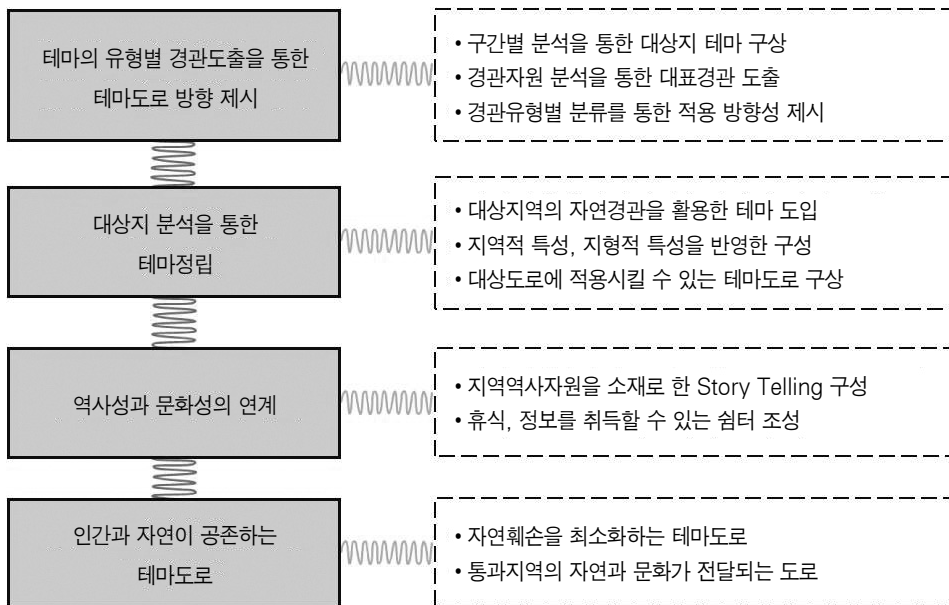


그림 1. 테마도로 기본구상 Flow



그림 2. 국도 46호선, 진부령 길 테마구상

3. 경관도로 속에 깃든 도로문화

최근 「삶의 질」향상에 따른 급격한 인식변화에 따라 국토기반시설의 품격을 확보하고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적 관점의 사회간접시설 (Infrastructur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와 웰빙 열풍으로 도로이용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도로의 건설과 투자는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따라 도로의 양적 확장에 치중하여 도로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는 이러한 환경을 벗어나 도로가 단순히 이동통로가 아닌 생활공간으로서 휴식공간, 조망공간,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요구와 도로경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가치있는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등이 연계되어 역사문화 유적지나 관광휴양지 등에 이르는 도로를 그 특성에 맞는 경관도로로 조성하고 이를 홍보하여 도로가 국민에게 친근한 사회간접시설의 하나로 인식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경관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로의 미적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중 미국 연방도로청(FHWA)의 National Scenic Byways Program은 도로의 보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도로경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운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현재 '풍경가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확대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을 시도하고 경관, 자연, 역사, 문화 등 지역의 자원과 개성을 살려 다양하고 수준 높은 풍경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요령(건설교통부, 1998)」에서 도로건설 시 자연환경과 조화되면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이후, 최근에는 「경관도로조성 기본계획(국토부, 2007)」이 수립되었으며, 「도로설계편람 경관편(국토부, 2013)」이 제정되는 등 도입단계에 있어 선진 외국의 실적에 비해 아직은 일천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경관도로조성 기본계획수립연구 (2007.12)」에 즈음하여 종래의 이동통로 개념에 머물던 도로를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도로의 「공간개념」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Scenic Byway와 일본의 풍경가도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관도로의 제도적·기



그림 3. 녹지경관



그림 4. 국도35호선 범바위 쉼터



그림 5. 수변경관



그림 6. 전망대에서 바라본 낙동강 상류의 빼어난 경관

술적 정비가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시기가 도래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관도로」는 도로를 구성하는 다양한 도로요소, 연도요소, 원경요소 등이 조화되어 도로 주변의 자연적, 인공적 요소를 관망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가진 도로를 말하며, 경관도로를 조성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운전 중 좋은 경관을 제공하고, 전망이 좋은 곳에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주변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등이 연계되어 자연경관지역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유적지나 관광·휴양지 등에 이르는 그 특성에 맞는 '역사·문화·경관이 있는 도로'를 만들어 이를 널리 홍보하여, 국민들에게 친근한 사회간접시설의 하나로 인식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경관도로는 스토

리가 있는 공간, 힐링의 공간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가 가까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경북 안동지역에서 발굴된 '묘'에서 나온 300여년 전 조선시대 중기 부부간 사모의 마음을 담은 편지의 사연이 배어 있는, 안동댐 하류에 가설되어 있는 '월영교'는 주변의 뛰어난 풍광과 직선교량이 아닌 '사선-직선-사선' 형태의 선형, 교량 가운데 팔각정, 좌우지점의 강쪽으로 내민 전망공간 등이 스토리텔링(story telling)과 교량의 아름다움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 거니는 스토리가 있는 공간, 힐링공간, 머무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성리학의 대가 퇴계선생이「도산서원~토계리~가송리~청량산」으로 걸으며 사색하고 지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던 사색·교류·수양을 상징하는 '퇴계가 걷던 길'과 연계되어 문화와 역사, 경관이



그림 7. 스토리가 있는 공간, 월영교



그림 8. 힐링의 공간, 백수해안도로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고 있다.

전남 영광지역 바닷가 산자락으로 개설되어 있는 백수해안도로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산줄기가 서해 바다를 향해 내달리며 해안의 풍경과 함께 경관이 펼쳐지는 곳으로 해안절벽 사이로 솟아있는 멋진 바위들이 다이내믹한 해안풍경의 변화를 연출하며, 해질 무렵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서해낙조가 지친 마음을 신선하게 치유하는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관광지화 되어 펜션, 위탁시설, 판매시설이 주변을 점차 채워가고 있어 보존과 개발의 적정선을 찾는 지혜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도로이용자가 운전 중 뛰어난 경관을 감상하고 전망이 좋은 곳에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주변 경치와 지역을 느끼면서 도로를 달릴 수 있다면 사회간접시설로서 도로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관도로는 도로의 개성과 지역성을 표현하며, 지역경관의 보호와 주변과의 조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경관의 창조, 역사와 문화를 느끼게 하는 도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도로 등으로 규정되며, 「경관도로」의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의 아름다움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동시에 알리며 도로를 매개체로 하여 관광지와 광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전체의 관광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광인프라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기존도로에 식재하였던 수목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경관을 형성하여 독특한 녹지경관을 갖춘 경관도로로 각광받고 있는 전남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길은 시간의 흐름이 가져다 준 경관변화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

힐링의 숲, 편백나무 삼림으로 유명한 전남 장성에 인접한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길은 사시사철 다양한 풍광으로 변신하여 장관을 연출하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가로수 길 가운데 하나이다. 1970년 무렵부터 심어지기 시작했던 이 길은 1990년대 후반 국도 4차로 확장사업으로 잘려나갈 위기에 처했으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원형이 보존되어 대나무와 더불어 담양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는 한적한 산책로로 탈바꿈해서 지역주민들의 운동장소로 인기를 얻으며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되고 있다. 40여년 수령을 자랑하는 가로수 밑에 서면 사람들조차 나뭇가지가 되고 나뭇잎이 되는 묘한 기분에 젖으며, 굵직굵직한 나무 밑동들이 규칙적으로 도열해 있는 모습에서는 수학적 공간구성의 아름다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4. 선진국의 친환경·경관도로

4.1 핀란드 E18 Green Highway Project

최근에 방문하였던 핀란드에서는 북유럽에서 러시



그림 9. E18 Green Highway Project

아로 연결되는 E18 고속도로에 대해 「E18 Green Highway Project」를 추진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고속도로 17km구간을 개량하고 노선변경에 의해 36km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생태환경보전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국가답게 세계 최초로 친환경성이 확보된 고속도로의 생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로건설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대책, 그 지역에 서식하는 고유종인 사슴 종류의 포유류에 대한 이동경로의 확보 등 해결책을 면밀히 수립하여 반영하고 있었으며, 탄소저감형 도로를 지향하여 중단선형을 구간별로 개량하여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4.2 노르웨이 국립관광도로, National Tourist Routes

노르웨이는 아름다운 피오르드 협곡과 험준한 산악으로 이루어진 자연경관을 따라 18개의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각각의 루트에서 도로와 자연, 역사가 만들어 낸 경관을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국립관광도로 사업은 1994년에 착수하여 2020년 완료예정으로서 현재 200여개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으며, 도로·건축·예술·통신·관광·마케팅·비즈니스 분야가 참여하여 전형적인 협업(Co-work)형태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관광·경제·산업의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전원지역 거주여건 제공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연계 관광사업으로 피오르드 패스(FJORD PASS)를 국립관광도로 주변의 노르웨이 내 120개 호텔과 제휴하여 영국·독일 등과 연계한 국제적인 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관도로 사업이 추구해야 할 벤치마킹 사례로 꼽힌다.



그림 10. 노르웨이 국립관광도로

이러한 노르웨이 국립관광도로 가운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곳이 대서양쪽 북해의 해안에 개설된 '아틀랜틱 도로(Atlantehavsvegen)'이다.

바닷가를 따라 일곱 개 교량의 아치가 바다의 가장자리에 있는 섬과 바위가 많은 작은 섬 사이의 웅장한 전망을 연출하고 있는 이 도로는 노선의 중심에 있는 교량(Storeisumdbrua, 총연장 260m, 중앙경간 130m)이 '너울'을 형상화한 구조물 디자인으로 아틀랜틱 도로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 노선은 달리는 기능에 집착하는 전통적인 도로의 패러다임을 파괴한 컨셉의 도입으로 도로와 바다와 주변자연이 하나가 되는 온몸으로, 오감으로 느끼는 '환상적인 체험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4.3 네덜란드의 친환경·경관도로

국토의 1/3 이상이 해수면 이하이며, 국토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해발 400m를 넘지 않는 네덜란드는 통과하는 도로공간이 주변지역 녹지와 도로변 녹지가 연결되도록 Green Network 컨셉을 철저하게 적용하

고 있으며, 길어깨쪽으로 철저한 식재로 도로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마치 숲 속을 달리는 느낌을 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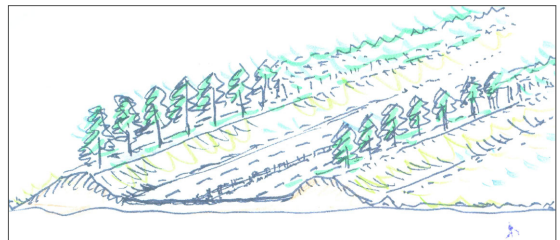


그림 11. 친환경성이 확보된 네덜란드의 고속도로

일반국도 구간에는 큰 나무와 수풀을 오가는 곤충, 파충류, 양서류 등을 배려한 생태연결로, 도로변 여유부지를 활용한 생태습지, 주변 식생과 조화되는 수종의 식재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에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4.4 미국의 Scenic Highways & Byways

미국은 1992년 이래, FHWA(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미연방도로청)의 National Scenic Byways Program으로 미국 전역에서 경관이 뛰어난 도로를 선정하여 그 지역을 '도로경관'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서부지역 태평양을 따라 달리는 캘리포니아 주의 1번 해안도로는 깎아지른 절벽과 바다가 어우러져 천하의 절경을 만들어 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해안도로이며, 군데군데의 Vista Point와 소규모 주차장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수시로 멈춰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 금문교(Golden Gate Bridge)를 지나 북쪽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에는 드

라이브를 즐기며 해안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나간 역사의 흔적을 보존하고 해안지형에 개설된 도로이지만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여 도로의 Barrier Free를 실현하고 있는 모습은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도로모습에 비해 너무나 대비를 이루고 있어 무척 인상적이었다.

5. 도로경관의 개선방향

지방부 도로와 도시부 도로를 포함하여 도로경관 관점에서 분석하였을 때 개선되어야 할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인공시설물의 최소화' 관점에서 접근할 때, 도로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녹지시설 보다는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디자인이 결여된 기능중심의 인공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도입하여 전반적으로 도로이용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삭막한 가로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이면도로와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에도 과도한 규격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초래

Explore Byways

Choose a region on the map to see more detail.



그림 12. 미국의 Scenic Byway 분포도



그림 13. 누구를 위한 시선유도봉인가? 잠수교 보도옆



그림 14. 가로수인가? 조형물인가?



그림 15. 노면표시와 시설물로 어지러운 교통섬



그림 16. 그린네트워크를 고려하지 않은 보도구간

하고 있다.

두 번째, ‘그린네트워크 확보’ 관점에서 볼 때, 도시부 도로에서 가로수의 본래 기능인 ‘녹음형성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봄철마다 되풀이 되는 지나친 가지자르기로 가로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보도 폭이 8m 이상 충분히 확보된 구간에서도 복렬식재가 아닌 형식적으로 가로변에만 가로수를 식재하여 삭막한 가로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다양한 도로공간 기능의 확보가 요망된다.

최근 일반국도 주변에 설치된 경관쉼터의 경우에도 공급자 중심으로 설치되어 국도변 여유부지에 편의시설(파고라)과 식재를 하였으나 이용객이 멈출 수 있는 주차공간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노상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쉼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설치로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전반적으로 볼 때 조망대상에 대한 조망점 위치선정의 부재, 접근성 저하, 녹지 미확보로 ‘머무는 공간’으로서 기능

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점 등이 분석되고 있다.

6. 도로문화와 접목한 도로기술의 활성화 방안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주변에 엮여져 있는 ‘도로’는 도로주변에 숨쉬고 있는 역사·문화전통의 흔적들과 자연환경·지역여건·인문사회 환경이 결합된 실체이다. 그러므로 도로기술은 기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패턴화된 설계기술이 아닌, 주변환경·지역여건·경관·지역문화·삶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집약된 기술이므로 종래의 평면적이고 일차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한 단계 진보된 도로기술의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먼저, ‘기존도로에 접목할 수 있는 도로문화와 관련한 도로정비기술’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제안할 수 있다.

- 테마(theme)가 있는 도로를 조성하는 기술



그림 17. 그린네트워크가 확보된 거리 - 서초구 잠원동



그림 18. 녹음이 형성된 가로수 - 종로구 명교동

- 도로주변의 명승지·경관시설물·경관우수지역·쇼핑몰 등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도로조성기술
- 달리는 도로에서, 보고 머무르고 느낄 수 있는 도로로 전환시키는 정온화 도로조성기술
- 도로주변의 불량한 경관, 위험한 도로안전환경 등을 정비하여 편안한 도로를 제공하는 스마트 도로 조성기술

두 번째, '신설도로에 접목할 수 있는 도로조성기술'은 다음과 같다.

- 도로전문가, 조경가, 디자이너 등이 협업하는 융합도로 설계기술
- 문화·경관·환경 등이 종합된 도로경관디자인 기술
- 인공적인 국토풍경을 자연스럽게 접목시키는 친환경·생태도로 조성기술

세 번째, '기존도로와 신설도로에 접목할 도로조성기술'에서는 경관선택터 조성기술, 경관구조물 조성

기술, 친환경·경관도로 조성기술, 도시부 경관가로 조성기술, 정온화도로 조성기술 등을 정립하고 적용하여 도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도로재생' 관점에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로기술자들이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도로선형의 설계일관성 정립, 다양한 설계요소를 접목시킨 설계프로세스의 개발, 도로경관디자인 시스템의 단계별 상세프로세스 정립 등에도 구체적인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뜻있는 도로전문가들이 열정을 모아야 도로문화와 접목한 종합적인 도로기술이 활성화되고 정착될 것이다.

7. 글을 마무리 하며

경관이 아름다운 길은 도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경관적·생태적·심미적 가치를 높이는 개념의 도로이며, 이제 도로는 '토목 시설물의 생산'에서 '도로문화의 창출'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서 있다.

이제는 그동안 일차적 관점이었던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한 차원 높은 경관적, 심리적, 인간공학적 측면과 아름다운 국토풍경을 창출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 조상들의 흔적과 삶, 정서, 역사, 문화, 자연이 정신적·물리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자연적인 국토풍경에 '문명을 대지 위에 조형화 하고 그것을 계기로 아름다운 풍경을 형성하고 의도하는'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명제에 대해 도로전문가들은 어떠한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도로기술자는 다양한 전제와 조건을 조화시켜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하며,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단순히 기능적인 목적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조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이라는 인식의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